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3월 미 소매 판매, 2년 만에 급등... 차량 구매 러시

[미국 금융]

- WSJ: 미·중 갈등 확대로 금 선물 가격 최고치 돌파
- Bloomberg: WTO의 교역 하락 우려 속에 나스닥 2% 하락세
- WSJ: 달러 약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 관세 여파]

- Bloomberg: 트럼프, 중국에 “협상하러 내게 오라” 촉구
- Bloomberg: 트럼프, 수입 핵심 광물에 관세 부과 검토
- YahooFinance: 중국, “미국이 존중을 보여주면 협상할 준비 돼 있어” 시사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10월 이후 급등... 주택 구매 수요에 찬물

[글로벌 경제]

- Bloomberg: WTO, 트럼프 관세로 인한 세계 교역 전망 하향 조정
- WSJ: 관세 발효 전, 중국 경제 성장세였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Reuters: 미국, 엔비디아와 AMD 칩 중국 수출에 제한 강화
- WSJ: 금 선물, 미중 경제 긴장 고조로 사상 최고치 기록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Retail Sales Jump by Most in Two Years on Car-Buying Rush

3월 미 소매 판매, 2년 만에 급등... 차량 구매 러시

- 3월 미국 소매 판매가 차량과 전자제품 등의 구매 증가에 힘입어 크게 상승했다. 소비자들이 관세 시행을 앞두고 구매를 서두르는 모습으로 보인다.
- 금일(16일)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매 판매 규모는 2월과 비교해 1.4% 증가하며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구매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융]

WSJ: Gold Futures Hits Record High on Mounting U.S.-China Economic Tensions

미·중 갈등 확대로 금 선물 가격 최고치 돌파

-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경제 갈등이 확대되면서 금 선물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 금 선물 가격은 2.5% 상승한 온스당 3,321.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SP Angel 분석가들에 따르면, 최근 금값 상승은 미국이 글로벌 교역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연방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으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협상 시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달러 가치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Nasdaq 100 Drops 2% Amid Global Trade Warning: Markets Wrap

WTO의 교역 하락 우려 속에 나스닥 2% 하락세

- WTO가 올해 글로벌 교역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근 조용하던 증시가 흔들리며 글로벌 주식 매도세가 다시 시작됐다.
- 글로벌 교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엔비디아의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나스닥은 2%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나스닥 종목 중 일부는 5.7% 하락했으며,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ASML 홀딩 NV는 반도체 주문 둔화 소식에 따라 5.9% 하락했다.
-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글로벌 교역 규모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약 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Bloomberg 기사

WSJ: What the Weak Dollar Means for the Global Economy

달러 약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미 수출 기업들은 이미 관세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로 인한 환율 변동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자국 통화의 상대적 강세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압박을 받고 있다.
- 현재 달러는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스위스 프랑 등 주요 통화 대비 사상 최고 수준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 통화와 비교한 ICE 미국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8% 하락해, 1995년 이후 가장 큰 연초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 관세 여파]

Bloomberg: Trump Presses China to Make Tariff Offer to Calm Trade War
트럼프, 중국에 “협상하러 내게 오라” 촉구

-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 양국 간 무역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 작하려면 자신에게 접근해 오라고 촉구했다.
- 백악관 대변인이 대독한 발언에서 트럼프는 “공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이 우리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들과 협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중국이 규모가 크다는 점 외에는 다른 나라들과 다를 것이 없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고 있다. 즉, 미국 소비자들이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Launches Critical Minerals Probe to Weigh New Tariffs

트럼프, 수입 핵심 광물에 관세 부과 검토

- 트럼프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품목들에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수입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 이들 핵심 광물을 국가 안보와 연계시켜, 미국 내에서의 생산과 개발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트럼프가 작일(15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 상무부는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해당 핵심 광물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시 받았다.
- 이들 광물에는 희토류, 우라늄 등이 포함되며,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레이더 등 국방 분야에서 필수적인 자원들이다.

Bloomberg 기사

YahooFinance: Trump tariffs live updates: China signals readiness for talks if US shows respect amid 'numbers game'

중국, “미국이 존중을 보여주면 협상할 준비 돼 있어” 시사

- 중국은 미국이 245%의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하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 SA)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미셸 램(Michelle Lam)은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존중과 일관성 있는 태도를 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 중국의 국영 방송 역시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수치 게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YahooFinance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Jump Most Since October, Denting Home Demand

미국 모기지율, 10월 이후 급등... 주택 구매 수요에 찬물

- 미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미국의 모기지율이 지난주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와 재융자 수요가 타격을 받고 있다.
- 모기지은행협회(MBA)는 오늘(수요일), 4월 11일로 끝나는 주간에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20베이스포인트 상승해 6.8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변동 금리 모기지율과 15년 고정 모기지율도 함께 상승했다.
- MBA의 모기지 신청 지수는 4.9% 하락했으며, 재융자 지수는 12% 감소해 지난 5주 동안 네 번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WTO Slashes Outlook for Global Trade on Trump Tariff Disruptions

WTO, 트럼프 관세로 인한 세계 교역 전망 하향 조정

-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관세 인상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5년 세계 상품 무역량이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미국 주도의 무역전쟁이 없었을 경우보다 약 3%포인트 낮은 수치로, 2026년에는 2.5% 반등이 예상된다.
- WTO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강행하여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2025년 세계 상품 무역은 1.5%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북미 지역 무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아시아와 유럽은 소폭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미국-중국 간 무역 혼란으로 중국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며 제3국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China's Economy Grew Before Tariffs Kicked In

관세 발효 전, 중국 경제 성장세였다

- 중국 경제는 1분기 미국의 새로운 관세 시행 전 수출 급증으로 5.4% 성장했으나,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 UBS 중국 경제학자 타오 왕은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올해 3분의 2 감소하고, 전체 수출은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 중국은 국내 소비 진작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글로벌 성장 둔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 일부 중국 기업은 제3국을 통한 생산 이전으로 관세를 회피하려 하지만, 트럼프는 이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 UBS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3.4%, 내년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Reuters: US issues export licensing requirements for Nvidia, AMD chips to China

미국, 엔비디아와 AMD 칩 중국 수출에 제한 강화

-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와 AMD의 MI308 인공지능 칩 및 이에 상응하는 제품에 대해 중국으로의 수출에 새로운 허가 요건을 부과한다고 15일 발표했다.
-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H20 인공지능 칩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55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uters 기사

[보고서]

美서 對中 무역협상 압박수단으로 美증시 상장 중기업 퇴출 논의

폴리티코 보도...中기업 286개 美증시 상장, 총 시가총액 1조1천억달러 외국회사문책법·행정명령 등 활용 가능...中기업 퇴출시 美금융시장 요동 우려

미국 정부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온라인매체 폴리티코가 15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난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